

# “세월호 시국선언 문화계 116명, 검열·배제 대상이었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1302명 중 116명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비서실이 검열·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앞서 진상조사위가 지난 10일 전체 원본을 공개한 9473명 시국선언 블랙리스트 중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성명’(2015년 5월1일) 문화예술인 594명과 ‘4·16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문헌인 시국선언’(2014년 6월2일) 754명 등 총 1348명(중복제외 1302명)이었다.

이번에 확인된 배제 대상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예술위 심의위원, 아르코문화창작기금, 아르코주목할만한작가상,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생동하는 문학관, 연극창작산실 대본공모, 다원예술 창작 지원,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문정신온라인서비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시각예술 도록자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분야별로 문학이 많아... ‘2015아르코창작기금’ 등 배제 대상 79명

당시 청와대, ‘세월오월’ 홍성담 작가에 사찰·검열·배제작업 실행

번역지원, 한국문화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등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세월호 시국선언 문화예술인 중 검열·배제는 문학 분야에서 많았다. 특히 ‘2015아르코문화창작기금’ 배제 대상 105명 중 60명, ‘2015아르코 주목할만한작가상’의 경우 배제 대상 81명 중 19명, 총 79명이 세월호 시국선언 관련 문헌인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예술 작품,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과 검열을 해왔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우파단체, 일명 애국단체를 동원한 시위, 명예훼손 고발, 업무방해 고소, 특정 언론과 결탁한 세월호 관련 작품 폄해 보도, 세월호 관련

단체 내사 진행 등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위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세월오월’의 화가 홍성담에 대해 “추적해 처단”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사찰, 검열, 배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실제 2014년 8월7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오월’ 작품과 관련해 홍성담 작가에 대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들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팝업시어터 공연 ‘이 아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 공연 방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보

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이번 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팝업시어터’는 극장이 아닌 일상적 공간인 카페나 극장 로비, 공연 등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15분 안팎의 짧은 공연으로 예술위의 행사명이다.

2015년 10월 17~18일 예술위 카페 시어터에서 공연한 ‘이 아이’는 프랑스 작가 조엘 폼의 작품 중 9번째 장을 각색했다. 이 과정에서 원작의 하늘색 잠바가 노스페이스 잠바로, 캠핑이 수학여행으로 각색됐다.

진상조사위는 “10월17일 ‘이 아이’ 1회 공연을 본 당시 예술위 문화사업부장은 ‘이겨 세월호 얘기 아니야? 노스페이스랑 수학여행이 왜 나와?’라며 담당직원에게 말하는 한편 공연예술센터장에게 전화를 해 ‘공연 대사에서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이 나온다’고 보고했다”고 확인했다.

예술위가 이 공연 방해 사건 후 자체 진상 조사를 한 후 예술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진상조사위는 전

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조사에서 2015년 ‘공원은 공연 중’ 10월 프로그램이었던 ‘팝업시어터’ 참여 예술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가 있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시국선언=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는 등 위법적인 강경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음성화돼 시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검열·배제 등 탄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문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 오르는 등 지원사업 배제 대상에 오른 문화 예술인은 현재까지 최소 116명이며 규명되지 않은 피해의 범위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천시와 청풍리조트 관광객 유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3일 제천시청에서 제천시(시장 이근규)와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홍보 협력 방안, 지역 주민 우대 및 할인 정책으로 제천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 주관 행사시 우선 행사 개최지로 적극 협조 및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대한 자문과 우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제천시 관광 자원과 청풍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우대·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청풍리조트 활성화와 제천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풍리조트가 제천시의 대표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제천시의 동반성장으로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주 찾는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00년 9월 29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풍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를 위해 13일 고창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시·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베리&비오 식품연구소’를 찾아 신타농정과 식품연구소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연 모습.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를 위해 13일 고창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시·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베리&비오 식품연구소’를 찾아 신타농정과 식품연구소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연 모습.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한약재 생산 기반 구축 나선다

임실군이 약초산업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져 나간다. 군은 예로부터 약초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임실을 약초산업의 메카로 다시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군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심민 군수와 농업회사법인 정담(주) 박서연 대표, 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의 정철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한약재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임실 지역의 한약재의 생산·가공·제조 유통·판매를 통한 재배 활성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을 통해 임실군과 약초영농법인들은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고품질의 약초를 생산하고, 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수집·유통을 담당하며 농업회사법인 정담(주)에서는 제조·가공을 담당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및 산지가공 기술협력, 지역생산 한약재의 수요확대 및 관료개척, 안전한 한약재 공급 및 유통을 위한 협력 등이다. /임실=진중영 기자

##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확대

### 도, 내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전북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노후된 도로와 옹벽, 약취방지를 위한 오·폐수관로 정비, 공공이용시설(관리동, 화장실, 소방시설 등), 주차장 등 입주기업의 불편해소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6억원(국비 8, 시군비 8)을 확보하여 군산 서수농공단지 등 13개 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과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7개시군 15개 농공단지에서 21억원의 사업계획을 잠정 수립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55개 단지 중 준공된지 15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 32소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의 불편해소와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에 55개의 농공단지 990만4,000㎡가 조성되고 분양대상 771만9,000㎡중 6,802㎡(분양율 88%)가 분양되어 놓여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20일 입후보안내 설명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에 참여할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전북선관위 회의실(4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투표·개표 참관 등 ▲정치자금·선거비용에 관한 사무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규정 등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